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 3000억원 증액
지역상업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 새로 반영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었고, 지역상업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을 감액한다. 단, 국가재무와 국제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한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된

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지역상업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한다. 이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 드러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656조5000억원 규모의 내

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를 거쳤지만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따져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것이고, 개별 사업에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것"이라며 "증액이 안 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일

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삭감 내역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지 않았겠다. 반드시 공격개발원조(ODA)에서 R&D로 간다든지 일 대 일로 매칭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했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합의했지만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넘긴 지 오래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며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



20일 전북도의회 의정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 13명 신규 위촉

입법평가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자치입법 신뢰성 강화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0일 의정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조례 입법 평가는 '전라북도조례입법평가조례'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난거나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관련 사업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촉된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위원은 도의원,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입법 평가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자치입법 입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통합이 필요한 조례, 상위법

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입법 평가의 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12월 중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조례 소관부서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위촉장 수여 시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매년 입법 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자도 성공 출범 도민 마음 모으는 기회”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특자도 동행적금 가입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도민 홍보를 위한 동행적금에 가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심경식 부행장과 최강성 지역상생부장, 김은호 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은행이 출시한 특화상품이다. 도민 누구나 전북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 금액은 월 5만원~50만원 이하로,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일을 기념해 전북은행에

서 출시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속한 안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 특색 있는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달 30일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성공예금은 내년 3월 29일까지 도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0만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김재훈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영농조합법인 조사 철저히”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영농조합법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위법사항을 발견했음을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부정수급과 영농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법망을 위반했던 것 등 중요재산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 중 식재된 소나무 4주가 부족함에도 과거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엔 심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공문서 상 변경됐다고 한 대표자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법인 대표자 명의로 상이함에도 위법령위반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체적 법령 위반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날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황영석·윤수봉 의원이 20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대정부 농성 현장인 국회 로텐더홀에 방문, 전북 국회의원들과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정의 실현 방향으로 처리돼야”

이정린·황영석·윤수봉 도의원,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촉구 국회 농성장 방문

2024년도 국가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이정린 부의장(남원1), 황영석(김제2)·윤수봉(완주1)의원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대정부 농성 현장인 국회 로텐더홀에 방문했다. 20일 도의원들은 농성중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의회와 도민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예산이 전액 복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농성중인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 국회의원)은 "전국 500만 전북인들의 염원과 분노, 새만금 예산 복원을 책임지겠다는 당의 약속을 내년 예산안 의결 결과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정린 부의장은 "도민들의 새만금 예산 복원을 향한 강한 의지는, 폭설과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서울로 향하게 했다"며, "예산안이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처리돼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

고 역설했다. 황영석 의원은 "무려 4개월간 쉴 틈 없이 이어진 전북도민들의 투쟁이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전북의 직박골 자존심과 긍지가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고, 윤수봉 의원은 "부당한 예산 삭감, '예산 독재'를 멈추고, 삭감된 새만금 예산 전액을 정상 복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임종훈 의원

민주평통 의장·전북부의장 표창 수상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과 임종훈 의원이 20일 전주시 라한호텔 은고를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북지역 활동영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 '전북부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임정호 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통일 기반 조성 등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임종훈 의원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여론 형성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부의장 표창'의 수상으로 선정됐다. /고창=김영희 기자

익산시의회, 내년 시 본예산 1조7483억 확정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날 28일부터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5건 등 일반안건과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

점을 두고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익산시 본예산을 △일반회계 1조6,101억6,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8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193억9,500만원, 총 1조7,48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현 의원, 조남석 의원, 한동연 의원, 김순덕 의원, 조규대 의원, 김중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내년도 시 본예산 9918억 확정 의결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0일, 3차 본회의를 열고 35일간 진행된 제2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5건을 심사했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약 192억을 삭감했으며 9,918억원으로 확정심의·의결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상승화 대책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